

#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박 영 자\*\*

- |                               |                                 |
|-------------------------------|---------------------------------|
| I. 서론                         | IV. 근면·알뜰·이약함: 생존 전쟁의<br>전사(戰士) |
| II. 보은과 섬김: 가부장 카리스마의 이행(移行)  |                                 |
| III. 돌봄과 헌신: 여성에게 국민부양 전이(轉移) | V. 결 론: 지속과 변화                  |

---

## Abstract

---

###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Songun*’ Politics Period (1995-2006)

The paper studies the sexuality of North Korean women in the time of ‘*Songun*’ politics. This study points out how women construct their identities, how women and men think about the world, militarism policy by the power of Pyongyang, and then in the sexualities form of women and men, what the deepest effect is. It is powerful militarism about the society and people as well as army that the power of Pyongyang has taken military policy. The time of study is the period from 1995 to 2006.

In North Korea on ‘*Songun*’ politics the difference of sexualities, masculinity and femininity, are grounded in policy by military-power, rather than in alleged biological differences. In the military society the masculinity equals with army. So the sexualities of men are invariability, camaraderie, loyalty,

daring, cruelty, merciless, and so on. And the power confines the role of women such as military mother, sending to troops one’s children, caring for military personnel and wounded ex-soldiers, looking after military home round about. Also the power requires to women more active participants and more devoted life about army, society and home, having the military spirit, military life and military fashion.

In this process the power coerces women into the women sexualities hoping the military-power. Therefore the femininities are gratitude, serving, devotion, care, industry, thrifty, mercenary, and so on. The work is successfully progressed quite with a shortage of food and sending to troops one's children including daughter.

**Key Words:** Songun politics, North Korean women, sexuality, militarism, national power

---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B00018).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 I. 서론

한국 군사정권 하 엄혹한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하다, 1986년 위장 취업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에 의해 성고문 당한 후 이 문제를 사회화하여 유명해진, 권인숙씨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여성에 대한 오랜 성찰과 연구 후 쓴 박사 학위논문이 ‘내 안의 군사주의(Militarism in Myself)’이다. 학생운동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그 후 남성사회의 뿌리 깊은 폭력적 우월성과 적대를 경험하고 깊게 고민한 그녀는, 2005년 출간한 저서에서 군사정권을 경유한 우리 사회에 ‘군사주의’와 ‘폭력성’이 얼마나 깊게 내면화되어, 양성(兩性)의 심리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sup>1</sup>

그렇다면 절대권력자의 지배와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총동원, 그리고 6·25전쟁 이후 일상화된 군사문화 속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으며,<sup>2</sup> 특히 1995년 국민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난 속에서 군대를 앞세워 사회전체를 군대식으로 재조직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김정일정권의 ‘선군정치’<sup>3</sup>와 병영체제를 경험하고 있는, 2,300여 만의 북한주민과 사회에 내면화된 주요 심성은 무엇일까? 상식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한국의 군사주의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북한권력의 군사주의는 주민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06년 10월 9일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고조된 동북아 긴장고조 문제를 제쳐놓더라도 북한경제가 자체로 회복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현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주민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북한정권의 지배가 장기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내부군열을

<sup>1</sup>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서울: 청년사, 2005). 그녀는 군사정권 종식과 87년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와 개인의 심성(mentality) 및 행위에 ‘군사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정(軍政)과 군사문화 경험이 그 체제가 종식된 2006년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와 국민의 잦은 갈등과 대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의 사회적 평화와 평등, 그리고 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sup>2</sup> 20세기 전쟁은 ‘전 국민 총력전(總力戰)’이었다. 1·2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의 파괴력과 영향력, 그리고 제노사이드로 드러난 인간에 대한 야만과 폭력을 극적으로 드러낸 전쟁사였다. 그리고 이 폭력적인 양차 대전을 직접 경험하고 냉전체제에 편입된 나라들은 ‘안보’라는 국가 목표에 따라,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총력전을 준비하기 위해 전 사회와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더욱이 전쟁과 함께 내전을 경험한 나라들은 동원체제 그 자체도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한은 그 대표적 역사 사례이다.

<sup>3</sup> 북한문헌은 선군정치를 “국방을 국사중의 국사, 국가정치의 중핵적인 중대사로 내세우고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투철한 관점에서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틀어 쥐고 조성된 난국도 타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독특한 정치리념, 령도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평양: 평양출판사, 2002), p. 188.

고려할 때, 시기적 예측의 적실성을 떠나 만약 회자되는 ‘북한체제 비상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북한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병영체제로 인한 남성부재 사회에서 시장사회화를 주도하며 일상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북한여성일 것이다.

2006년 현재 북한주민의 생존구조와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사회를 보았을 때 급변사태 발생이나 급작스런 통일이 추진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은 북한여성일 것이다. 구동독의 급변과 독일통일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 10년 넘게 서독주민, 동독남성에 이은 3등 시민으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을 뿐 아니라 생존과 정체성 문제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이에 저항하였던 동독지역 여성의 수난사와 독일여성계의 고난을 떠올려보자. 냉전질서에서도 동서독이 남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높고 시민의식이 향상된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 한반도에서 그 위협의 수위와 폭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주민의 심성과 특히 북한여성의 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곧 닥칠지도 모를 통일사회 준비에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와 주민 갈등을 예비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더 나은 통일사회’를 준비하는 구체적 과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양성평등한 사회 구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대,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21세기 통일 과정과 그 이후 사회에서 최대 다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북한여성의 소외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중장기적 연구계획에 따라 먼저 북한여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sup>4</sup>과 이를 위해 먼저 군사주의 국가권력이 북한주민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밝힐 필요에 의해 연구되었다.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흔히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적 정체성’을 의미한다. 즉 국가와 사회 권력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상이하게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 등 삶의 기준으로, 한 사회에서의 ‘성(性)적 정상상태’를 표현한 개념이다. 또한 국가가 성역할을 규범화하는 젠더(Gender)정책<sup>5</sup>의 일환이다.

<sup>4</sup>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한 한국여성계의 현실인식과 구체적인 문제의식 및 고민들은 광복60주년,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으로 2005년 5월 10일 여성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여성평화통일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 통일을 말하다』 (서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5).

20세기 총력전 체제를 경험한 사회에서 전쟁과 군대는 남성성의 상징이다.<sup>6</sup> 더욱이 10년 이상 지속된 북한의 선군정치 과정에서 대부분의 건장한 남성들은 군대 또는 군관련 사업과 무기·군수산업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집중과 폭력성은 사회적 위계의 원천이 되기에, 남성과 군대를 중시하는 병영체제에서 자원배분과 권위배분은 당연히 남성중심적 가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다.<sup>7</sup> 사회적 권위배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병영체제 하에서 북한 남성성의 근원이며, 북한권력과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규범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총대’ 정신이다. 북한문헌이 밝히는 ‘총대’의 성격은 바로 선군시대 북한권력이 규범으로 제시하는 남성성이다. 정리해보면 불변성, 무조건적 충성심, 동지애, 인내심, 용맹함, 비타협성, 단호함, 무자비함, 적에 대한 증오 등이다.<sup>8</sup>

이러한 남성성을 근간으로 하는 군사주의 체제에서 김정일정권은 북한여성에게

<sup>5</sup> 젠더 개념은 성기(性器)의 다름으로 인한 자연적인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공동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경제적 구조를 주목하는 개념이다.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 *Gender, Work, Space* (New York: Routledge, 1995).

<sup>6</sup> 조지 L 모스, 이광조 옮김, 『남자의 이미지』 (서울: 문예출판사, 2004), p. 192.

<sup>7</sup> 이 같은 사회에서 남성성은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전사(戰士)로, 여성성은 이런 남성성을 높이 받들며 보호하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민족전사를 재생산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더욱이 식민지배 종결 후 위로부터의 민족국가 수립을 경험한 아시아지역 나라에서 이와 같은 종속적 젠더정책과 위계적 섹슈얼리티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George L. Mosse, *Nationalism and Sexuality*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5); Anthias Floya & Yuval Davis Nira,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New York: Routledge, 2000); A. Basu, “The Many Faces of Asian Feminism,” *Asian Women* 5 (Seoul: Research Institute of Asian Women, The Sookmyung Women’s Press, 1997), p. 7.

<sup>8</sup> 그 핵심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대의 성격은 무엇보다도 불변성에 있다. 총대는 오로지 주인이 겨누는 목표를 향해 곧바로 탄알을 날린다. 국제정세가 변했다고 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간고하다고 하여 결코 그 양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세추이를 보아 가며 갈 길을 선택하는 간신들의 기회주의적 작태는 총대의 변함없는 모습과는 상반되는 몰골이다. 총대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쏘면 탄알을 날리기 마련이며 예돌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 총대의 생리는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혁명 앞에 다진 맹세를 변함없이 지켜 가는 혁명동지의 참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총대는 타협과 양보를 모른다. 혁명은 그 자체가 원칙이어서 단 한걸음의 후퇴와 양보가 열걸음, 백걸음의 후퇴와 양보를 가져오며 그것은 혁명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며 적에게 통락 당하는 비극적 후과를 빚어낸다. 쏘면 목표판을 구멍내기 마련인 총대의 무한한 비타협성이야말로 혁명을 사소한 우여곡절이나 편차도 없이 곧바른 길로 전진하게 하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총대는 단호하고 무자비하다. 원수에 대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력은 총대의 근본속성인 동시에 최대의 장점이라 하겠다. 총대 앞에서는 리유와 구실이 통하지 않는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p. 204. 이와 같은 남성 섹슈얼리티는 20세기 초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던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스트들이 강조한 남성성과 군대정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 L 모스, 『남자의 이미지』, pp. 271~274.

어떠한 성적 정체성을 요구 및 강제하고 있는지, 그 1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면 국가권력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그것은 권력에 의해 여성의 삶에 주어진 도덕성·책임·윤리의 실체와 정체성 형성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 중 성규범으로 나타나는 성적 정체성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덕’이다. 도덕이란 국가권력 뿐 아니라 가족, 사회집단, 교육기관, 교회 등이 그렇듯이 각종 규율기제를 통해 개인이나 그룹들에게 제안 및 강제되는 행동 규칙과 가치들의 총체를 의미한다.<sup>9</sup>

섹슈얼리티 연구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어떻게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가를 중시한다.<sup>10</sup> 앞서 보았듯 섹슈얼리티 구축공간과 권력은 다양하다. 그 중 본 연구는 군사주의 국가권력과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선군시대에 살고 있는 여성에게 권력은 어떠한 성적 정체성을 요구하였는지, 특히 권력에 의한 내면화 작업을 연구한다. 여기서 내면화(internalization)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거나 지배적인 가치가 개인의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말한다.<sup>11</sup>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으로 199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발간된 북한의 공간문헌 중 본 연구주제 관련 가장 신뢰할 만한 구체적 사료(史料)인 『김정일 선집』, 『로동신문』, 『조선녀성』을 활용한다. 활용방법은 먼저 1995년~2006년까지 발간된 세 문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내용을 각각 따로 분석한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세 문헌 분석내용을 시기별로 교차 확인한다. 문헌별·시기별 특징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재분석한 후, 객관성이 입증된 내용을 자료화한다. 마지막으로 각 문헌의 대표성을 고려해 활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태와 정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열적으로 활용한다.

<sup>9</sup> 그러나 이러한 도덕율이 전일적으로 정체성이 되지는 않는다. 그 수위와 양상은 권력에 지배양식에 의해 그리고 이를 자기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체화 과정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 1997), pp. 39~41.

<sup>10</sup> Gilligan, Carol,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sup>11</sup> 전병재,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1), p. 268. 내면화는 수용자가 영향을 주는 권위나 외적 상황, 또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순응이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를 상대에 동일화(identification)하는 것보다 더 심층적인 영향을 지칭한다. 전병재, 위의 책, pp. 341~343. 즉, 개인이 권력의 요구나 사회에 보편 가치를 수용하여 행위와 사고의 준거로 삼고 있는 상태를 내면화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면화는 권력에 의해 구성된 규범의 사회화를 수용자적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다.

## II. 보은과 섬김: 가부장 카리스마의 이행(移行)

민족주의를 증시하는 국가권력이 사회와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이 같은 공간과 언어, 그리고 풍습과 법을 공유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푸코(Michel Foucault)의 표현에 따르면, “단순히 개인들이 합쳐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각자가 살아있는 육체적 실체인 왕과 법률적이며 동시에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성원들 각자와 인격적·법률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절대지도자, 이것이 바로 “민족의 몸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지도자의 인격 안에 존재하게 된다.<sup>12</sup> 이렇듯 민족을 대표하는 절대지도자가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 절대지도자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수직적 위계사회’가 된다.<sup>13</sup>

이때 절대지도자는 국가권력과 하부 권력집단에 의해 조작되어 대중에게 부과된 하나의 신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의 위력이 현실을 덮어버리는 수준이 된 사회가 바로 북한사회이다. 때문에 북한은 21세기에 보기 드문 인격화된 1인 절대권력 체제를 2006년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다.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 권력구조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바로 왕조적 인덕(仁德)정치<sup>14</sup> 논리와 그 신화가 만들어 낸 은혜에 보답하라는 ‘보은(報恩)의 윤리’, 그리고 그 인덕을 높이 섬기라는 ‘섬김의 도덕’이다.

그렇다면 보은과 섬김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김정일정권은 어떻게 구성하였는가? 그것은 김일성시대 구축한 가부장적 카리스마를 김정일시대로 이행시키는 과정이었다. 그 역사와 과정을 살펴보자.

### 1. 유훈통치와 김정일정권 수립

1994년 김일성 사망이후 유훈통치를 실시한 김정일정권은 수령인 김일성이 여

<sup>12</sup>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서울: 동문선, 1997), p. 253.

<sup>13</sup> 마루아마 마사오, 김석근 역,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1997).

<sup>14</sup> 북한문헌에 따르면 인덕정치는 김정일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김정일을 우러러 모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원리’로 21세기 태양인 김정일이 백성인 북한주민 뿐 아니라 천하를 껴안는 ‘무한대한의 사랑’이라고 한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정치방식연구』, p. 64.

성해방을 위해 베푼 은혜를 선전하며 여성에게 보은의 윤리를 강조한다. 김정일의 논리를 살펴보면, 북한 여성운동의 전통은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여성들의 사회정치적 해방과 자주성을 실현하도록 지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해방이후 남녀평등권 법령을 직접 작성하고 제도화하여, “녀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 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었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돌보아 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성들의 마땅한 도덕이고, “혁명적 의리의 최고표현”이라고 선전된다. 또한 인민은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며,<sup>16</sup> 김일성의 권위와 권력을 자신이 온전히 계승하려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권력지지를 받아 안은 정권의 친위대들은 각종 사회화 기제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심성을 김정일에게 이전(移轉)시키며 그 내용을 북한여성들에게 내면화시킨다. 그 역사와 과정, 그리고 논리를 살펴보자.

1995년 3월 8일 3·8 국제부녀절 85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국가권력의 여성에 대한 요구를 현실화시키는 여성동맹(이하 여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강판선은 ‘수령의 유훈’이라는 ‘김정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모든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 숭배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충신, 효녀”가 되어야 한다며, 어느 사회단체보다 가장 앞서 김정일에 대한 충심과 효심을 불러일으킨다.<sup>17</sup>

그리고 1996년 3월 3·8 국제부녀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각 도 마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고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 수 있는 여성의 정신과 생활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조직한다.”<sup>18</sup> 이어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발포 50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정무원 부총리 김복신은

<sup>15</sup> 김정일,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력량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 1995년 3월 8일),” 『김정일 선집 14』, p. 26.

<sup>16</sup> 김정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김정일 선집 14』, p. 114.

<sup>17</sup> 『로동신문』, 1995년 3월 8일.

<sup>18</sup> 『로동신문』, 1996년 3월 8일.

<일편단심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자>는 기치를 선전하며, 이제 단순한 충신과 효녀가 아니라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최고사령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진짜배기 충신, 지극한 효녀가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sup>19</sup>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절대권력자 김정일과 북한여성의 관계는 ‘왕과 충신’이며 동시에 ‘아버지와 효녀’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심성을 가진 효녀로서의 삶과 왕을 우러르고 따르는 섬김의 도덕을 실현하는 충신으로서의 삶이 강제된다. 이 과정은 효녀와 충신의 역할 수행여부를 떠나 ‘보은과 섬김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구성하는 과정이고, 김일성의 가부장적 카리스마를 김정일에게 이행시키는 과정이다.

1997년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섹슈얼리티가 구체화됨과 동시에 각종 은유를 통해 형상화된다. 여맹 부위원장 한계옥은 “오늘 우리 녀성들이 사회의 꽃, 나라의 꽃, 충성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언제나 녀성들을 아끼시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녀성으로 내세워주시려고 온갖 은정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3·8국제부녀절을 맞아 “우리 인민의 삶의 태양이시고 행복의 전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표하였다.<sup>20</sup>

그리고 김정일정권이 공식화된 1998년 3·8국제부녀절 88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는 <일편단심 김정일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참된 충신이 되자!>, <혁명적 신념과 량심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자!> 라는 구호가 핵심 구호로 등장했다. 특히 모든 여성들이 김정일을 “투철한 신념과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나가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아버지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충신, 제일효녀가 될 데 대하여 강조” 하였다. 충성과 섬김의 자세가 투철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어느 계층보다 충효의 모범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회부터 김정일은 “민족의 태양”이 되었다.<sup>21</sup>

국제 및 한국의 대북지원이 증대하면서 군대와 당 및 국가기관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배급이 평양지역에까지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되자, 1999년부

<sup>19</sup>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sup>20</sup> 『로동신문』, 1997년 3월 8일.

<sup>21</sup> 『로동신문』, 1998년 3월 8일.



터는 강성대국론이 등장하고 이와 함께 보은과 섬김의 정당화 논리가 좀 더 확장된다. 즉, 김일성의 명성과 권위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업적과 전망에 대해 보은과 섬김의 심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김일성시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갖은 미사어구가 등장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보은과 섬김의 도덕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999년 3월 천연옥 여맹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녀성들을 포함하여 온 나라 전체인민이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효일심으로 받들어어나가야 한다”며 이전보다는 근거있는 논리를 선전한다. 그러면서 섬김의 윤리는 더욱 강화한다. 여성들은 김정일사상의 절대적인 숭배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7월에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발아래 만발하는 혁명의 꽃”으로 여성을 은유하며, 북한여성들이 “위대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행복의 꽃, 나라의 꽃, 혁명의 꽃으로 피어나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선전하며, “위대한 아버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녀성들은 충효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만발할 것”이라며 은유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sup>23</sup>

2000년에 들어서는 보은과 섬김의 윤리를 구체적인 생활세계에서 발휘하도록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3월 8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여맹위원장 천연옥은 <당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녀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떨치자>라며 여성들의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그리고 3·8국제부녀절 90돌 기념행사에서 “녀성들을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생활의 꽃으로 내세워 주는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해 나가는 것이 오늘의 조선녀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보은과 섬김의 자세를 생활세계에 발휘하여 여성들이 사회적 모범을 창출하도록 독려한다.<sup>24</sup>

## 2. 대적(對敵) 군인정신과 선군시대 여성미

2001년 미국 대선결과 공화당 내 신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부시정권이 들어서고 기독교적 정신세계에 기초한 비타협적이고 도덕적인 ‘종교적 근본주의’ 경향이 드러나게 되면서, 북한정권은 클린턴 정부시기 북미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

<sup>22</sup> 『로동신문』, 1999년 3월 9일.

<sup>23</sup> 『로동신문』, 1999년 7월 30일.

<sup>24</sup>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부터 미국에 의한 외적 위기를 선전하고 반미반제라는 대적논리 강화로 체제 내적 결속을 더욱 강고히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변화와 함께 북한권력에 의한 보은과 섬김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 과정에서 미국으로 대표되는 ‘적에 대한 강렬한 증오’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강고한 내적 결속’, 그리고 군인과 동일한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여성에게 부가된다.

2002년에 들어 군대 내에서는 군정배합(軍政配合)을 강조하면서 군사와 정치일군의 합심 및 수령결사옹위의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결사항전의 군인정신을 전 사회가 체화하도록 각종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한다. 2002년 3월 9일 3·8 국제부녀절 92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모든 녀성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태양조국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자며,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를 강조하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당의 참된 딸”이 되자며 불안감과 위기 체감도를 높인다.<sup>25</sup>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 녀성들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함께 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며 순간을 살아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 김정일 결사옹위투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보은과 섬김의 맥락에서 ‘적에 대한 강렬한 증오’가 강조되어, 전체 북한여성들로 하여금 반미항전(反美抗戰)과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군대를 적극 원호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일치를 이루어내며, 특히 “모든 어머니들은 아들딸들을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2000년대 <트.ㄷ><sup>26</sup> 열혈투사”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다.<sup>27</sup>

나아가 보은과 섬김의 최고봉으로 여성군인을 선전하고 칭송하며 여성군인 조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선군시대 북한여성들이 “정의의 총대 잡은 것은 조국과 인민의 큰 자랑”이고, 처녀시절 남성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조국을 지키는 여성군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처녀들이 군인의 아내가 되는 것을 “아름다운 꿈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이것을 “장군님은 자랑스러워하고 항상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보장”해 준다고 선전한다.<sup>28</sup> 그러면서도 <수령님 품속에서 붉게 핏니다>, <장

<sup>25</sup> 『로동신문』, 2002년 3월 9일.

<sup>26</sup>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절 조직했다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약자.

<sup>27</sup> 『로동신문』, 2002년 3월 9일.

군남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라는 여성가요에서 나타나듯 여성은 여전히 절대권력 자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담론을 선전한다.<sup>29</sup>

여성군인에 대한 칭송무드를 형성하면서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병역을 의무화하는 군사복무법을 제정하고, 복무기간을 남성은 13년에서 10년, 여성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전 국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하였다.<sup>30</sup> 전민 군사복무제를 채택한 2003년 3월 8일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 있게 떨치자>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담론으로 섬김의 도덕과 내부결속을 강조한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 위대한 선군 시대에 사는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떨쳐야 한다. 녀성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간직하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받들고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데 조선녀성운동의 최대의 사명이 있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장군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며 언제나 장군님을 깨끗한 량심과 순결한 도덕의리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며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은 선군시대 녀성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 주신 무적필승의 백두산 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녀성들의 오늘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이 있고 희망찬 미래가 있다.”<sup>31</sup>

그리고 3·8 국제부녀절 93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북한여성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하게 보살피 주신 장군님”을 선전하고, “모든 녀성들은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수령 절대 숭배심,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한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만드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sup>32</sup>

이 같은 김정일에 대한 섬김의 도덕률은 각종 문학예술로 형상화되었는데 대표적

<sup>28</sup> 『로동신문』, 2002년 7월 30일.

<sup>29</sup> 『로동신문』, 2002년 7월 31일.

<sup>30</sup> 정영태·박형중, “북한의 병력감축설 및 전민복무제 채택의 의미와 대책(정책건의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sup>31</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sup>32</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9일.

으로 『금반지』라는 시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우리 장군님 가시는 선군길을 아름다운 비단필로 펼쳐 드리고 싶은 이 나라 녀인의 그 마음이 비껴 내 마음에도 뜨거운 금반지”라는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띈다.<sup>33</sup> 이 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연상케 하는 애절하고 헌신적인 정서를 가득 담고 있다. 그러나 소월의 시에 나타난 ‘입에 대한 원망’의 서정은 보이지 않고, 오직 ‘순종의 미덕’ 만이 넘칠 뿐이다.

나아가 선군시대의 “새로운 여성미”가 부각되는 데, 그것은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로 “총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선군형의 녀성”이다. 북한당국은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녀성들의 새로운 모습이며 인류 녀성사가 알지 못하는 특출한 녀성미도 다름 아닌 여기에 있다”고 한다. 《우리 집은 군인가정》이란 노래가 부각되고, 모든 여성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 선군혁명동지”로 “최고사령부의 녀성부대이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운명공동체, 친근한 전우이고 한 식솔”이라며 내적 결속과 병영체제 강화를 위해 군사적 동지애를 가감한다. 또한 가족의 군대입문을 독려하는 상징담론으로 군인가정의 여성을 표현하는 <전호가의 붉은 ‘진달래’>와 김정일에 대한 섬김의 도덕을 극대화하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이라는 은유가 등장한다.<sup>34</sup>

### 3. 김정일 결사옹위의 신념과 의리

북미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던 2004년 3·8국제부녀절 94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가자!>,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가 핵심구호가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백두산 3대장군으로 표현되는 김정숙에 대한 선전이 강화된다. 특히 북한 여성운동이 김정숙에 의해 개화기에 들어섰다면, 그 이유는 김정숙이 북한의 여성운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습취고 움직이는 주체의 녀성운동으로 강화 발전”시키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sup>35</sup>

200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교화된 보은과 섬김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다양한

<sup>33</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sup>34</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sup>35</sup> 그러므로 “모든 녀성들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품모를 따라 배워 경애하는 장군님을 걸음걸음 따르고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가 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 강조되었다. 『로동신문』, 2004년 3월 8일.

방식으로 북한여성에게 작용하였는데 그 논리는 큰 차이가 없으나 첫째, ‘보은의 도덕’을 ‘섬김의 이유’로 더욱 강조하는 것, 둘째, ‘섬김의 정당성’을 ‘김정일의 위대성’으로 선전하는 것, 셋째, 유사용어들이 반복되면서 더 화려하고 절박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넷째, 보은과 섬김의 윤리를 잘 구현했다는 수많은 여성사례가 소개되고 교육되어 그 심성을 내면화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증산군의 한 모범 여맹원은 “자신을 한푼에 안아 키워주고 참된 삶을 안겨준 수령을 믿고 변함없이 따르는 한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는 혁명가의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령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된다”며, 해방 후 새 삶을 주어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준 “수령님과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이 심장깊이 자리 잡혀” 있고, 그 은덕에 보답하고자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념과 의리’의 전형이라고 한다.<sup>36</sup> 조선노동당 창당 60년을 맞이한 2005년 10월 북한의 여성잡지 『조선녀성』에 실린 <붉은기를 높이 들고 당을 따라 60년>이란 기치의 사설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 녀성들은 조국광복의 은인, 녀성해방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은덕을 잊지 말고 수령님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민족의 어버이로 대를 이어 높이 모시도록 해야 한다…우리 녀성들은 다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한몫숨 바쳐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신념을 안고 그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야 한다.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도 서슴없이 내대는 결사옹위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과 로선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선군시대의 요구대로 살며 일해 나가야 한다.”<sup>37</sup>

2006년 들어서는 <<21세기의 태양 만세!>>라는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를 연상케 하는 ‘절대적 위대성’을 표현한 극존칭이 담론화된다. 북한여성들이 북한체제 그 자체인 지도자 김정일을 목숨바쳐 섬겨야 하는 이유는 <사상리론의 독창성, 령도의 현명성, 탁월한 령군술, 한없이 넓은 도량, 세상만사에 막힘이 없는 다방면적인 지식, 빠르고 정확한 정치적 결단성, 강한 정치적 의지> 등이다. 그리하여 “오직 문무재덕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만을 령사는 후세불멸한 자량으로 기록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긍지 하늘에 닿았다”라는 식<sup>38</sup>의 천지신명에게 바치는 축문

<sup>36</sup> 『조선녀성』, 2005년 8월호, p. 37. 이 시기 북한의 각종 행사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우리 수령님>>, <<조선의 장군>>이다.

<sup>37</sup>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p. 30.

(祝文)을 연상케 하는 신비주의 채색이 두드러진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힘은 선군정치와 자주국방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준 김정일의 위대한 은혜라며, 보은과 섬김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극대화하고 있다.

“그이를 모셔 민족의 생존조차 가능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엄혹한 시련의 시기 자위적 국방력의 핵심력량인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되었고 온 나라가 난공 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었으며 국방공업은 더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원수벌 찬란히 빛나는 최고사령관기가 펄펄 휘날리는 오늘의 선군시대에 혁명적 군인정신이 세차게 내려치고 혁명군가가 지심을 흔들었다. 조국은 또 한번 넓어지고 또 한번 높이도 뛰어 올랐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국방의 힘이 낳는 위력은 이렇게 크고 강한 것이었다…우리 장군님 그 모진 시련과 난관을 무한한 혁명성과 헌신성, 숭고한 책임감으로 이겨내시며 숨을 조이는 제국주의 무리들의 끈질긴 암살공세도 막아내셨고 사탕알보다 총알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동음이 멎은 공장들과 불빛이 꺼진 거리를 뒤에 두시고 전선으로, 국방강화의 길로 달리고 또 달리시었다.”<sup>39</sup>

북한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나라, 내 인민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서로 ‘사생결단의 험난한 길’을 헤쳐 나온 아버지 김정일의 위대성이라며<sup>40</sup>, 보은과 섬김의 도덕을 극대화하고 김일성의 가부장적 카리스마의 김정일로의 이행을 정당화한다.

### Ⅲ. 돌봄과 헌신: 여성에게 국민부양 전이(轉移)

여성학자들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들보다 사람과 사기간 상호작용 및 내적 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 여성들이 국가보다 공동체에 더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sup>41</sup> 인류의 문명발전과 함께 인간의 심성도 다양한 양태로 변화되었지만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역할분담과 남성주도 국가권력 및 군대가 강화되면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인간공동체 내부를 관리하고 돌보는 심성이 자

<sup>38</sup> 나아가 김정일은 비범한 한평생을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장군 가문의 군인이었고, 항일대전과 반미성전에서 60여 성상을 “보통 인간들이 상상 못할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신” 신적 존재라는 것이다. 『조선여성』, 2006년 2월호, p. 5.

<sup>39</sup>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p. 11~12.

<sup>40</sup>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 12.

<sup>41</sup> Seager, Joni, *Earth Follies: Coming to Feminist Terms with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New York: Routledge, 1993).

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성적 위계의 본질’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sup>42</sup>

오히려 근대 국가권력이 국민을 조직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세계를 점차 이원화하고, 차별적 세계인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획하여 위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 性위계의 원인이다. 위계적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기술은 통치에 효과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완성되었다. 남편에게는 집박이 아내에게는 집안이 할당되어 전자는 남성의 구역이 되고 후자는 여성의 구역으로 제도화되었다.<sup>43</sup>

이러한 공간배치의 이원화와 함께 근대 국가권력에 의해 구성된 여성 섹슈얼리티 중 대표적 것이 ‘돌봄의 윤리’이다. 가정을 기준으로 한 공간구조의 이원화와 자녀 및 가정을 돌보는 돌봄의 윤리, 그리고 성스러운 모성이 자녀와 가정을 위한 ‘여성의 헌신성’으로 정형화된 것은 서구의 경우 19세기 빅토리아시대 자리 잡아 20세기 근대 민족국가의 확장과 함께 보편화되어 21세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한정되지 않았다. 국가권력이 감당하긴 번거롭고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되었던 고아와 부랑자,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도 여성의 심성으로 구성되었다.<sup>44</sup> 국가보다 인간공동체에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돌봄과 헌신’의 심성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그렇다면 경제난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군대와 국방에 올인(all in)하고 있는, 북한권력은 ‘돌봄과 헌신’이라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sup>42</sup>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생산력 발전과 함께 정착 및 농경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남성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또는 부족 간 전쟁을 위해 여성에 비해 이동이 잦았으나, 여성은 양식재배와 출산에 힘쓰다 보니 경험세계가 좁아지고, 둘째, 직접민주주의의 시초이며 모델인 그리스 도시생활을 통해 확인되듯이 부권제가 보편화된 고대 문명과 잦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주요 부분인 정치와 군대가 남성세계로 자리 잡았고, 셋째, 여성이 전쟁터에서 지친 남편의 안락을 위해 미용과 가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남성의 뒤를 이를 출산과 양육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더욱이 높은 남성 및 유아 사망률과 피임법의 미발달로 많은 시간을 출산과 몸조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sup>43</sup>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공역, 『성의 역사: 제2권 쾌락의 활용』 (서울: 나남, 1997), p. 214.

<sup>44</sup> 이 활동은 서구 부르조아들의 ‘기부문화’와 연계되어 중산층 여성들의 정신적 충족감을 채워주는 역할도 하였다. 그리고 부자가 자신의 부 중 아주 일부라도 사회에 베푸는 문화는 富者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공적 부담을 일부 상쇄시켜주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훌륭한 미덕’으로 칭송되어 부자들의 도덕율로 자리 잡았다. 그리하여 ‘자원봉사’ 형태로 다양한 빈민구제 활동이 자발적으로 행해지기도 하며, 국가 및 집단의 대중동원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성하고 있는가? 가정 내적으로 보면 의식주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에게 가족구성원의 생계책임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보면 군대를 돌보는 원군활동과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꽃제비<sup>45</sup>·장애자·노인·고아 등 선군정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가족법 제정과 고난의 행군

북한은 1990년 최초로 가족법을 제정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난과 집단생활 이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준비를 시작했다. 1990년 처음 제정된 북한 가족법은 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결정 제35호》로 수정 및 보충되었는데, 그 주요 목적 및 내용은 국가의 인민부양 의무를 가족, 특히 여성 및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 목적은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데, 주요 조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가족법의 기본 편 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sup>46</sup>

가정을 체제유지의 기본공간으로 인식하며 가정생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북한정권의 고유한 논리인 ‘국가=사회주의 대가정’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의 일차적 제정목적이다. 제4조에 국가의 후견제도가 실현되는 양상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여맹, 인민반, 그리고 주체로 보면 기혼여성의 역할로 작동한다.

제3장 가정과 제4장 후견 편을 보면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가정과 사

<sup>45</sup> 꽃제비는 1995년~97년 북한인구 약 200만 명이 기아로 사망 또는 실종됨에 따라 형성된 ‘거리를 헤매며 구걸하여 사는 아이들’이다. 북한사회에서 꽃제비의 수는 약 100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고 연고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시장과 역 등을 돌아다니며 구걸도 하고 잔도독질 등을 하는 등 북한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무질서하고 궁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sup>46</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1장.



회에서 어떻게 구성하려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30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 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입양할 수 없다. 제37조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1조~36조까지 부부, 부모·자식, 조부모·손자녀, 형제·자매가 경제 및 육체적으로 생존능력이 없을 시 혈연가족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후, 제37조에서 총괄적으로 부양책임을 명시한 것이다.<sup>47</sup>

제4장 후견 편 중 제40조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2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4촌 내 혈족)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sup>48</sup> 국가비용 부족으로 책임질 수 없는 고아·노인·장애인 부양을 4촌 내 혈족의 의무로 하고, 혈족 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책임을 북한사회에서 여성공간인 주민행정기관 중 최고말단기관인 인민반과 여성조직인 여맹 주도로 기혼여성이 돌보아 주도록 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북한권력의 인식은 강력한 집단적 민족주의에 기초해 있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생물학적인 자웅단위를 기반으로, 원초적 감정에 의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을 국가공동체의 기초로 인식하며, 국가도 가족과 같은 자연적이며 본래적인 조직이라고 믿게 한다.<sup>49</sup> 이러한 민족주의 전략은 가족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가족 구성원을 생산하고 보호하는 여성역할과 그 역할의 사회적 확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 역할의 주체인 여성은 가정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생존도 돌보는 주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돌봄과 헌신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북한의 가정과 사회 둘다에서 구성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국가정책 및 지침 발표와 함께 여맹간부들의 선전과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내고 전파하면서 강화된다. 그 배경은 선군정치와 1995년 이후 기아로 인한 사상자 급증과 생존을 위한 가족해체 현상이 급증한 것 등

<sup>47</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3장.

<sup>48</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제4장.

<sup>49</sup>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0), pp. 23, 47.

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어머니가 가족생존을 위해 헌신적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과 새롭게 등극한 절대권력자에게 대를 이은 충성, 그리고 선군정치를 사회화하기 위한 군사중시 문화형성 및 인민군대 지원이 여성의 핵심임무가 된다.

1996년 7월 30일 개최된 남녀평등권법령 발포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내용에 의하면, 여성들은 “아들딸을 장군님에게 충성하고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며 건전한 정신도덕적 품성을 지닌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는데 모든 정성 다 바쳐야”하며, 군사중시·인민군대 적극원호를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0</sup> 최고권력층에서는 <혁명가 유자녀 학교>로 김정일의 핵심 친위대 및 군간부를 양성하는 만경대학원을 최고권력자와 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선전한다. 특히 최고권력자 가족구성원 중 여성, 어머니의 역할이 된다. 이에 대해 김정일의 언술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언제나 만경대 혁명학원 원아들 속에 계시면서 친부모도 다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으로 원아들의 학습과 생활을 세심히 돌보아 주시었습니다. 김정숙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싶어 하는 원아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건립하도록 하시었으며 혁명가 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 주시었습니다.”<sup>51</sup>

## 2. 제2차 어머니대회: 헌신성 독려

본 연구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1961년 말 김일성을 중심으로 온 사회와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구성하려는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책이 모색되면서 개최된 제1차 전국어머니대회 이후 열리지 않았던, 북한의 어머니대회가 1998년과 2005년 이례적으로 제2차와 제3차로 연이어 개최된 것이다. ‘국가를 떠 바치는 성스러운 모성’과 ‘모성의 사회적 확장’을 추진하며 여성의 헌신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군시대 북한체제가 얼마나 주민생존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가?’, ‘국가책임을 어떻게 기혼여성에게 떠맡기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회들이다.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개최전야인 1998년 9월 28일 『로동신문』 1면에 실린 <제2

<sup>50</sup>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sup>51</sup> 김정일, “만경대혁명학원은 주체의 혈통을 이어 나갈 핵심공간 양성기지이다(만경대혁명학원창립 50돐에 즈음하여 학원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 1997(주체86)년 10월 12일,” 『김정일선집 14』, p. 380.

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란 제목의 사설에 나온 이 대회취지는 “장군님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요구에 맞게 어머니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대회가 여성문제 해결과 후대 보육교양에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설에 실린 김정일시대 모든 여성과 어머니의 주요 역할은 첫째, 김일성 유훈관철, 둘째, 김정일 지도에 충실한 충신으로 ‘송고한 도덕의리’를 지킬 본분, 셋째,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인 김정숙 따라배우기, 넷째, 아이를 많이 낳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도록 충성동이·효자동이로 키울 것, 다섯째,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노력적 위훈 특히 농업과 경공업에 책임질 것, 여섯째, 부모없는 아이를 키우고 자식없는 노인들을 친부모와 같이 돌보는 ‘공산주의적 미풍’ 발휘 등이다.<sup>52</sup>

이 대회에서는 먼저 95~97년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들을 칭송하며, “조국의 미래는 그 시대 어머니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민족의 흥망, 조국의 운명, 혁명의 성패가 결정된다”며 어머니들의 헌신성을 강조한다.<sup>53</sup> 그리고 대회 개최당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대회축하와 함께 어머니들은 가정의 꽃·나라의 꽃이라며, 공산주의적 도덕품성과 집단주의 사상으로 가정의 화목과 집단의 단합을 이루어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여야”한다고 강조한다.<sup>54</sup> 대회는 천연옥 여맹위원장의 보고와 토론자소개로 시작되었는데, 대회장에는 <여성들은 김일성 조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자!>, <후대들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참된 충신으로 키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대회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sup>55</sup>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진행된 대회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김정일정권을 수호하고 사회 이탈과 혼란을 막아내는 어머니들의 모범을 전파하기 위해 사전에 각 도·시·군에서 조직된 모범 어머니들의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50여 명의 토론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가를 발표하였다. 발표된 내용의 핵심주제들은 첫째, 여성과 어머니들이 김

<sup>52</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sup>53</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sup>54</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sup>55</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정일의 충신·효녀로 살아가는 것, 둘째, 김정일의 총폭탄이 될 자식들을 많아 낳아 키우는 것, 셋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를 돌보는 것, 넷째, 고아를 맡아 충신으로 키우는 것, 다섯째, 농업과 경공업에서 생산수준을 높이는 것 등이다.<sup>56</sup> 가정과 사회를 돌보고 헌신하는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을 위해 당과 여맹, 그리고 최고권력자 김정일은 신중한 배려를 다하였다. 김정일은 대회 중 생일을 맞은 참석자들에게 일흔 돌상·환갑상·생일상을 보내주었으며, 폐막일에는 참가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다.<sup>57</sup>

2000년에 들어서 특히 총대가정이 중심적으로 강조되는 데, 선군정치 시대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2000년 3·8국제부녀절 대회에서 여맹위원장 천연옥은 사회세포인 가정을 혁명화하기 위한 여성역할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가정혁명화를 다그치고 자식들을 잘 키워 온 나라에 총대가정, 충신가정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58</sup> 또한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 발포기념일에는 북한여성의 헌신성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낮에는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고 밤에는 남성들이 잠든 후 남몰래 동지들을 돌보는 여성건설자들…자기는 굶으면서도 남편과 자식의 끼니를 때우던 어머니들…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이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안해들이었고 정다운 누나, 누이동생들이었다. 우리는 사랑스럽고 정다운 이들이 것처럼 훌륭하고 것처럼 힘 있다”

<sup>56</sup> 1998년 9월 29일~30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토론의 주요 발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새 세대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다(릉문탄광 도서보급원 신송옥), 대를 이어가며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받들어나가겠다(김시원동무가 일하는 공장 노동자 김광주),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남포시기관공급소 판매원 리옥분), 우리나라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아이는 없다(함흥시 해안구역 룡성2동 정복녀), 녀성들과 어머니들을 참된 충신, 효녀로 준비시키겠다(개성시 관훈동 초급녀맹위원장 정현숙),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충성의 한길에 한생을 바치겠다(위원군 룡연로동자구 우명옥), 당과 조국을 받드는 참된 삶의 길에서 어머니의 고귀한 이름을 끝까지 빛내여 나가겠다(덕천시 역전동 립매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세워주신 총대가정의 자랑을 끝까지 빛내여 가겠다(동림군 읍 최일희), 혁명화된 군인가정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다(조선인민군 군관 엄복순), 김정일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따르는 제일조선어머니들이 있는 한 민족의 대, 애국의 대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흑가이드본부 부위원장 서정숙), 자식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닌 총폭탄 영웅으로 키우겠다(부령군 석막 로동자구 박영순), 모든 어린이들을 충성동, 효자동으로 키우겠다(안변군 신화고 등중학교 교원 권금복), 60명 자식들을 김정일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겠다(부모 잃은 아이 60명을 키우는 조선인민군 박희일동무소속부대 로동자 립동선), 아버지장군님의 충성동으로 자식들을 더 잘 키우겠다(조선인민군 김덕준동무소속부대 로동자 변영실), 주체의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겠다(평양종합방직공장 정방공 김봉례)” 등이다.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로동신문』, 1998년 9월 30일.

<sup>57</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30일; 『로동신문』, 1998년 10월 1일.

<sup>58</sup>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것을 결코 짧게만 볼 수 없는 고난의 그 날과 날들에 더욱 똑똑히 절감하였다.”<sup>59</sup>

선군정치가 전 사회적 행동이념으로 확장되면서 여성군인 칭송과 민족전통을 고수하는 여성성이 중시된다. 더불어 선군가정과 군대원호를 넘어서 군민일치(軍民一致) 사상과 생활을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2003년 3·8국제부녀절에 맞춘 『로동신문』 1면에는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라는 사설이 실리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선군정치를 구현하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해야 한다. 녀성군인들은 선군시대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가 된 크나큰 긍지와 영예를 안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자신을 펄펄 나는 싸움군, 만능병사로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최고사령관동지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군인가족 녀성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 가정혁명화를 다그쳐 모든 가정을 총대가정, 혁명적 군인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군대 원호사업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사회주의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생활기풍을 고수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녀성들은 투철한 계급적 신념, 반미투쟁정신을 지니며 녀성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선군시대의 혁명찬가, 투쟁과 랑만의 노래가 더 우렁차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한다.”<sup>60</sup>

그리고 이 대회 93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 박순희는 군민일치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통이라며, 전체 여성들이 군민일치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 건설에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키고, “우리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서서 우리의 것, 우리 식을 적극 내세우고 빛내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라나는 후대들을 주체혁명의 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는 것은 조국의 부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녀성들이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성스러운 의무이고 응당한 본분”이라고 한다.<sup>61</sup>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여성 정체성 구성에 중요매체인 여맹기관지 『조선녀성』은 권력이 요구하는 여성역할의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전하는 데, 선군시대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돌봄과 헌신의 여성윤리를 제대로 구현했다는 사례를 보면, 첫째, 군민일

<sup>59</sup> 한편 “조선녀성의 힘이 그토록 강한 것”은 여성을 사랑하는 아버이 “김정일의 사랑이 낳은 힘”이라고 한다.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sup>60</sup> 더불어 “녀성들은 조국과 민족의 래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안고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영웅동이, 견결한 총대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한다.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sup>61</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9일.

치를 실현하며 군대를 원호하는 데 한평생을 보냈다는 여성, 둘째, 김정일의 지침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헌신적으로 군인을 돌보았다는 여성, 셋째, 대를 이어 최고지도자 가족에 충성하고 자식을 충신으로 키워 애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여성, 넷째, 군인가정과 고아들을 가족보다 더 헌신적으로 돌보았다는 여성 등이다.<sup>62</sup> 특히 어머니들에게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라는 논리와 함께 자식을 많이 낳아 앞장서서 군인이 되게 하는 것과 군대사랑 정신을 강조한다.<sup>63</sup>

### 3. 제3차 어머니대회: 병영사회 · 군인가정

2005년 북한은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는 데 형식과 주요내용은 제2차 어머니대회와 동일하지만, 그 강도와 내용이 훨씬 강화되어 쏘사회를 병영체제로 쏘가정을 군인가정으로 제도화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온 사회를 선군시대 군대와 동일한 병영체제로 조직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압박이 심해지고 해외원조도 감소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면서 북미관계의 긴장도 훨씬 심해졌다. 더욱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제》와 함께 북한사회의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 이탈현상과 가족 해체현상도 급증하였다. 북한권력층의 체제붕괴 위기감은 심화되었고, 체제존속을 위해 온 사회와 가정을 군대와 동일하게 작동되도록 강고한 <병영체제> 구축작업을

<sup>62</sup> 주요 모범사례 주체와 내용을 기사제목 및 핵심내용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산군 여맹원 모범사례 ‘철령의 어머니’(군민일치 원군길에 한평생), 룡천군 여맹원 모범사례 ‘남모르게 걷는 원군의 길’(김정일의 “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여야”라는 지적에 따라 행동), 길주군 함포리 초급녀맹위원회 위원장 김송순 모범사례 ‘대를 이어 가는 애국의 길’(그녀는 언제나 자식들에게 “원군은 애국 중의 최대의 애국이다. 우리 가정의 기풍은 첫째도 둘째도 원군이다. 나도 하고 너희들도 대를 이어 원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길에서 이 나라 백성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신의주시 녀맹원 모범사례, ‘혈육의 정인들 이보다 더 뜨거우라’ (“인간생활에서 형제는 혈육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서로 받들어주고 도와줄 때는 다 형제이고 동지로 될 수 있다”는 신조로 살았다고 한다). 『조선녀성』, 2005년 8월호, pp. 32~36.

<sup>63</sup> 즉 “자식들을 많이 낳아 조국의 선군미래로 훌륭히 키워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첫 교양자이다. 녀성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장군님께 충성 다하는 충성동이들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충대를 사랑하고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바칠 줄 아는 고상한 품성의 소유자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녀성』, 2005년 10월호, pp. 45~46.

추진한다.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사회전체를 병영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정을 군인인 구성원이 있는 <군인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족을 군인으로 둔 가정성원들은 체제안정과 군대에 관심 및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족성원인 군인의 긴장감을 공유하기에 곧 발발할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극도로 긴장된 생활을 감내하고, 체제존속을 위해 김정일정권에 충성을 다할 가능성이 비할 수 없이 높아진다.

따라서 딸·아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가정의 성장기 자녀들은 軍으로 보내져야 했다. 이 방법은 북한정권이 원하는 《진정한 군민일치》와 《전 가정의 군인가정화》, 그리고 《전 사회적 군대보호》와 《장군님 결사옹위》가 가능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고등중학생 이상의 성장기 자녀가 딸만 있는 가정도 딸을 군대로 보내, 군인가정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어머니들에게 강제한 것이 제3차 어머니대회에 부가된 특징이다. 그 典型사례로 어머니가 나서서 맏딸을 인민군대에 입대시키고 여동생 7명 모두 군에 입대하도록, 어머니의 주도 하에 맏딸이 앞장서 편지로 지원하는 등 군인가정화의 모범이 되었다는 가정을 살펴보자.

이 가정에서 먼저 군인이 된 맏딸은 어머니의 말을 되새겨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8자루의 총대가 되고 8개의 폭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동생들에게 군인이 될 것을 촉구하였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 군입대를 독려했다. 그리하여 이 가정은 여덟째인 어린 막내아들만 빼고 딸자식 7명 모두가 군인이 되었다고 한다. 어머니인 김성희는 자식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로 결사보위해야 한다…내가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 목숨은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며, 가정 내에서 충성심교양을 잘하였다고 한다.<sup>64</sup>

그녀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선전되면서 김정일은 선물을 보내주었고, 그녀는 2005년 진행된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 지역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에서 그 어머니와 선전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와 칭송으로 북한사회의 군인가정화를 독려했고, 그 가정은 《선군시대 총대가정》으로 평가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가정, 아니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보호자, 운명과 미래도 다 맡아주는 진정한 어버이이십니다. 나는 이 진정한 어버이 품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식들

<sup>64</sup> 『조선여성』, 2006년 2월호, pp. 26~27.

도 아이를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대를 이어 총대로 결사용위 해나가겠습니다...선군령장 김정일동지 있기에 이 나라 평범한 녀성들도 자기 가정의 행복보다 군사를 첫 자리에 놓고 애국의 한길, 충성의 한길을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sup>65</sup>

또한 김정일을 김일성보다 높게 평가하고 <우러러 모시는 심성>을 절대화하는데,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발표된 자녀교육 관련 대표적 모범사례는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은 18세 처녀대학생 류경화의 어머니이다. 여군 류경화는 2004년 군부대 사고 때 목숨바쳐 백두산 3대 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초상화를 불길에서 꺼내고, 사경에 처한 동료를 구한 후 사망하여 사후(死後)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 북한당국은 그녀의 어머니가 <평양의 꽃>이란 뜻의 ‘경화’라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충성심이 높아서 딸을 “수령결사용위의 꽃으로” 키웠으며 그 삶을 높이 평가하였다.<sup>66</sup>

북한권력이 체제생존을 위해 군사도발 및 병영체제를 극대화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2006년 현재, 북한여성에게는 “선군정치와 자주국방의 힘의 강화, 이것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살 길이며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를 대를 이어 영원히 받들어나가는 길”이 강조되고, 먹고 사는 문제와 사회경제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성들의 <돌봄과 헌신의 윤리>가 강화되고 있다.<sup>67</sup>

이와 같은 여성 섹슈얼리티 신화의 주인공은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김정숙은 북한체제 건국시기 “군사정치 간부 학생들을 위대한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데 가장 큰 힘”을 돌려, 건군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반미(反美) 결사항전시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따라 배우자》라는 운동이 북한여성에게 강제되고 있다.<sup>68</sup>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갈수록 증대되는 가족해체 현상과 고아 및 생활능력이 없는 무연고자 증대로 사회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다. 2006년 북한당국은 전국에 《꽃제비, 장애인, 노인, 고아를 돌볼 데 대하여》

<sup>65</sup> 『조선녀성』, 2006년 2월호, p. 27.

<sup>66</sup> 이 어머니는 경화가 소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대학입학 때까지 매번, “이 나라 어머니들이 자기 한가정도 지켜내기 어려워했던 그 준엄한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키워 대학생으로 내세워주셨구나. 어렵하겠지만 아버지 장군님의 이 은덕을 잊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장군님의 훌륭한 교육자가 되거라”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조선녀성』, 2006년 2월호, pp. 29~31.

<sup>67</sup>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 12.

<sup>68</sup> 『조선녀성』, 2006년 4월호, p. 15.



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고 강연회를 실시하고 있다. 강연 주요내용은 전 사회적으로 장애자, 꽃제비,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엄마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돌보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인민반과 법 기관들에서 구역 내 빈민노인과 고아들을 주민들이 맡아서 돌보게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 책임 주체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들이다. 또한 이혼과 재혼이 증대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내 불화에 대해 ‘계모가 전처의 자녀들을 천대하지 말고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돌보라’는 내용의 강연도 병행되고 있다.<sup>69</sup>

나아가 《사회에서 노약자, 꽃제비, 영예군인들을 도와주며 가정들에서 이혼으로 아이들이 방랑하거나 계모가 싫어 집을 뛰쳐나가는 현상을 당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대책할 데에 대한 지시》가 각 지역에 하달되었다.<sup>70</sup> 이처럼 북한당국은 전 사회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며 병영체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주민들이 돌보도록 강제하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여성에게 이 역할을 전가시키고 있다. 가정=사회=군대=국가의 병영일체화 정책은 가정을 돌보는 여성과 어머니에게 체제 보루의 핵심인 군대 또한 돌보게 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만 국방에 주력해야 하는 先君시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의 노동과 헌신을 여성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IV. 근면·알뜰·이악함: 생존 전쟁의 전사(戰士)

한 사회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군사 및 군수공업 중심일 때, 일상생활 세계를 꾸려나가는 여성은 인간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근면하고 알뜰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 유지를 책임지는 주체로 구성되기에, 경제가 어렵고 국가정책적 우선순위가 군대 및 중공업 일 때, 내핍과 출혈노동을 감내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200만 명 이상이 기아로 죽거나 실종되는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여성들은 근면과 알뜰한 수준을 넘어서, 생존을 위해 이악한 심성을 강화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여성들이 생존 전쟁의 戰士가 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sup>69</sup>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9호, 2006년 9월 27일.

<sup>70</sup> 이 지침에 대해 주민들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며 당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41호, 2006년 10월 11일.

특히 ‘이악함’은 북한여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다. 많은 북한연구자들이 탈북여성을 만나면서 느끼는 아이러니는 북한여성들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회에서 어머니 또는 여성으로 살면서 형성된 일반적인 ‘헌신적인 모성’ 또는 ‘강한 생활력’ 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억척스러움을 넘어선 특유의 승부욕과 이익에 대한 민감함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한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바로 북한의 공식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악함’과 긴밀히 연계되어있다.<sup>71</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여성들의 근면하고 알뜰하며 이악하기까지 한 특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주민생존 문제와 국가정책적으로 여성에게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젠더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선군정치로 남성은 체제를 지키는 군대와 군수산업에 투입되고 여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농업과 경공업에 배치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자원부족으로 거의 가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여성은 국가권력에 의해 근면하고 알뜰하며 이악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리고 생존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스스로 이악함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상적인 대적의식과 생존 및 체제유지 불안감에 시달리는 북한사회에서 이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저발전국 여성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기보다는 경제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군사주의 노선을 관철하는 국가권력이 주민생존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가하면서 요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특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일수록 여성은 생존을 중심으로 한 사적 질서의 수호자로 이상화된다. 민족주의가 강한 국가에서 개인적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되며, 개인적 열망은 민족적 이상을 향하게 한다.<sup>72</sup> 따라서 남성성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죽을지 아는 <전방의 전사>로 구성되며, 여성은 남성부재 사회에서 인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존세계를 책임지는 <후방의 전사>로 구성된다.

<sup>71</sup> 현대 한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악하다’라는 용어는 순수 한국어인데, 그 사전적 의미는 첫째, 자기이익에만 마음이 있다. 둘째, 달라붙는 기세가 굳세고 끈덕지다. 셋째,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태도가 있다 등이다. 비슷한 의미로는 ‘악착스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용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이다.

<sup>72</sup> Anthias Floya & Yuval Davis Nira, “Women-Nation-State,” J. Hutchinson & Anthony D. Smith (eds.), *Nationalism: Critical Concepts in Political Science*, Vol. 4 (New York: Routledge 2000), pp. 1480~1483.

## 1. 인민경제 생활책임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정치경제적 고립,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제와 생산구조, 급기야 1995년부터 시작된 災殃적 자연재해는 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북한체제의 최대 위기를 초래했다. 더욱이 최고권력자가 된 김정일은 경제적 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상·문예출판·군사·당 등 정치사상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경제와 생산영역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도 주요인이었다.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공장가동이 멈춘 상태임에도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활동노선에 대해 1996년 4월 2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나는 당사업도 보고 군대사업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관리사업에서 제기 되는 문제를 일일이 다 보아 줄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은 경제일군들이 맡아 하여야 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인식에 경제와 생산 관련 마인드는 부재하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물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 강화되고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사업에 난관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조직과 인민동원 사업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군대와 관련된 군수공업 부문만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그의 인식과 지도노선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군수공업이 제일 실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sup>73</sup>

배급제 기능마비로 북한사회에서 시장이 공급기능을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 생존할 수 없음에도, 북한남성들이 장사에 나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이 같은 김정일의 인식과 연결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민생존 책임은 온전히 여성의 몫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1996년 7월 30일 개최된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5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서 여맹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여성역할을 강조한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투철한 인생관을 지니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본받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 근면성, 알뜰한 일솜씨를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녀성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당이 제시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 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 고수해야 하겠습니다.”<sup>74</sup>

<sup>73</sup> 김정일, “경제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한 담화 1996년 4월 22일),” 『김정일 선집』, pp. 160, 171.

<sup>74</sup> 『로동신문』, 1996년 7월 30일

국가권력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가족생존을 위해 북한여성들은 목숨 건 생존투쟁을 전개했고, 95~97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을 견디어 냈다. 1998년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며 북한당국이 <조선의 어머니들을 자랑한다>며, “충포성 없는 전쟁으로 세상에 공인된 90년대의 우리의 고난의 행군의 나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부각되었다”고 칭송할 정도였다.<sup>75</sup>

그리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김일성민족이 사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sup>76</sup> 또한 김정일 정권과 선군정치가 공식화된 1998년 개최된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 대회장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함께 <여성들은 김일성조선을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게 된다.<sup>77</sup>

## 2. 제2천리마운동의 기수

자력갱생에 기초한 제2의 천리마운동이 전개되면서 이악하게 생활세계를 꾸려나 가야 할 여성 섹슈얼리티는 구체화된다. 2000년 3월 8일 『로동신문』 1면에는 <당의 위업에 충실한 조선여성들의 혁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사설이 실리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우리 여성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당을 따라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억세게 싸워 왔다”며, 21세기 더욱 강화되어야 할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모든 여성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 온 것처럼 강계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우리 시대의 영웅들을 따라 배워 당의 혁명적 경제정책 관철에서 누구나 새로운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생산과 건설에서 **이악하고 근면하며 알뜰한 조선여성의 훌륭한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모든 여성들이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에 서야 한다. 자강도의 여성들처럼 가정과 마을, 공장과 일터를 사회주의 맛이 나게 알뜰한 꾸리며 어려울수록 살림살이를 **이악하고 간지게** 해나가야 한다.”(강조 인용자)<sup>78</sup>

<sup>75</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8일.

<sup>76</sup> 『로동신문』, 1998년 3월 8일.

<sup>77</sup> 『로동신문』, 1998년 9월 29일.

<sup>78</sup> 『로동신문』, 2000년 3월 8일.

근면성, 알뜰함, 이악함, 억셈 등 국가권력이 책임지지 못하는 생활세계를 책임지우기 위한 억척스러운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녀성의 힘은 강하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더욱 억세어진 조선녀성의 힘은 백배, 천배로 강해졌다. 20세기의 령마루에서 세계를 놀래운 조선녀성의 힘은 우리 조국이 강성대국으로 빛을 뿌리게 될 21세기에 더더욱 온 세상의 경탄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독려들이 2000년대 이후 더욱 자주 등장한다.<sup>79</sup>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후방의 전사인 북한여성은 전방의 남성을 돌보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정신을 가져야 했던 것이다.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선군정치를 구현하는데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선군 시대는 우리 녀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녀성들은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와 일터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일신시키는데서 앞장에 서야 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알심 있게 짜고 들어야 한다…레절 밝고 문명하며 근면하고 강인한 것은 조선녀성 고유의 아름다움…그 아름다움은 오늘 우리 녀성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사회적 역할로 하여 보다 빛을 뿌리고 있다. 새로운 녀성기가 선군시대와 더불어 이 땅에 활짝 꽃 피어…우리 녀성들은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선군정치의 견결한 옹호자, 관철자들이다.”<sup>80</sup>

이 인용문은 북한권력이 요구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총집결하여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절은 보은과 섬김, 강인은 돌봄과 헌신, 근면은 알뜰과 이악함이다. 이 같은 특징은 조선여성 고유의 아름다움이라며 민족성 및 전통성, 그의 계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신봉자는 섬김, 옹호자는 돌봄, 관철자는 이악함이라는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역할로 표현하고 있는 데, 생존문제를 자력갱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2천리운동의 기수가 북한여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체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3. 강성대국을 향한 경제주체

2000년 이후 모든 여성대회에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 기개를 떨치자!>라는 구호가 나붙고, 여맹위원장이 앞장서서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자에

<sup>79</sup> 『로동신문』, 2000년 7월 30일.

<sup>80</sup> 『로동신문』, 2003년 3월 8일.

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령도 밑에 오늘 우리 여성들이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총대와 마치, 낮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sup>81</sup>

해방이후부터 김일성의 지시로 지속되던 <여성들은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라는 논리는 선군시대 견고한 군대식 역할분담론이 되어, 남성은 군대 및 군수공업, 여성은 경제 및 일상생활이라는 戰時역할론으로 발전하였다. 조선노동당 창당 60년을 맞이한 2005년 10월 『조선여성』 사설 제목이 상징적으로 밝히듯이, <여성들은 선군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계속 힘있게 떠밀고 나가자>라는 구호 하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sup>82</sup> 그러나 체제규범을 벗어난 개인주의적 이악함은 용납되지 않는다. 오로지 “선군 혁명령도 따라 고난의 행군을 헤쳐 왔으므로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을 향해 나가자”는 것이다.<sup>83</sup> 이에 대해 『조선여성』은 <장군님과 여성들>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선군혁명 총진군 길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생활의 꽃, 혁명의 꽃으로 온 나라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조선여성들, 불수록 미더운 그 모습에서 우리 인민모두가 가슴 뜨거이 받아 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우리 여성들을 삶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시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 격조 높은 웨침이다.”<sup>84</sup>

<사생결단의 험난한 길>에서 북한체제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군사를 중시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때문이므로, 여성들은 후방을 지키기 위해 이악스럽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sup>85</sup> 김정일은 인민들에게 “군대를 앞세우고 국방을 강화하기만 하면 공장을 살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라를 지키고 봐야 한다고 하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인다. 따라서 여성들은 “불패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sup>86</sup> 무엇보다 “그 어떤 보수나 평가를 바람 없이 누가 보건말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sup>87</sup>

<sup>81</sup> 『로동신문』, 2004년 3월 8일.

<sup>82</sup> 『조선여성』, 2005년 10월호.

<sup>83</sup> 『조선여성』, 2006년 3월호, p. 5.

<sup>84</sup> 『조선여성』, 2006년 3월호, p. 9.

<sup>85</sup>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 12.

<sup>86</sup> 『조선여성』, 2005년 10월호, p. 45.

이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생존을 책임지며 시장사회화를 주도하는 여성들은, 강성 대국 건설의 생활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독려 받는다.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발사 이후 북한의 준(準)전시태세가 보다 강화되었고,<sup>88</sup> 10월 9일 핵실험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은 주민생존을 위한 여성의 이악함을 더욱 독려 할 것이고, 북한의 시장사회화 과정과 연계되어 생존을 위한 북한여성의 '이악함'은 더욱 내면화 될 것이다.

## V. 결 론: 지속과 변화

‘양성평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고민하며 연구된 본 연구결과, 선군정치를 10년 이상 일관되게 강화한 김정일정권은 북한체제 존속을 위해 북한주민의 섹슈얼리티를 상이한 양상으로 구성하였다. 북한의 남성성은 체제유지를 위한 핵심규범과 동일한 맥락에서 구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불변성·무조건적 충성심·동지에·인내심·용맹함·비타협성·단호함·무자비함·적에 대한 증오 등 군인정신을 정교화한 《총대정신》을 그 특성으로 한다. 반면 여성성은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報恩)의 도덕, 우러러 받드는 섬김의 자세, 가정·군대·사회 취약계층까지 돌보는 돌봄의 윤리, 공동체를 돌보는 헌신성, 어려운 생존조건에서 자신과 인간공동체 생존을 책임지는 근면·알뜰·이악함 등이다.

북한권력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 구성작업은 경제위기의 지속과 배급의 불안정성, 선군정치로 인한 사회와 주민생존의 여성책임, 딸을 포함한 자식을 군대로 보내 군인가정이 되게 한 정책, 강력한 대적(對敵)의식 조장, 시장사회화와 경쟁 및 물질중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당히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선군시대 이전과는 어떠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해방 후 김일성정권은 당과 국가기관 건설, 토지개혁·노동법·남녀평등법 등 각종 제도개선, 선거사업을 경유하며 북한여성을 정치의 주대상으로 구성하고 6·25

<sup>87</sup> 『조선여성』, 2006년 4월호, p. 40.

<sup>88</sup>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군인들에게 수류탄을 포함해 전투정량, 탄약 등 휴대 가능한 무기를 발급했다.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서는 아예 국경봉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경연선에 잠복초소와 함께 함정을 파고 그 안에 창과 날카로운 꼬챙이를 박아 넣어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들었다. 한국의 예비군 또는 민방위에 해당하는 농업적위대까지 군복을 지급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훈련에 임하게 하고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5호, 2006년 9월 6일.

전쟁 이전까지 위로부터 법제도적 여성지위 향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前) 시대의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과 가족 내 위계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제도형식을 갖추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제 및 독려하였으나, 사회집단 내 성별 위계성을 담지한 여맹을 제도화하고 여성에게 권력에 헌신하는 규율을 강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혁명적 노동자성과 헌신적 母性’을 여성에게 동시에 독려하였고, 이 정책은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고착되었다.

헌신적 어머니역할에 경제건설을 위한 전후 노동력 증대요구에 따라 노동자역할을 부가한 것이다. 여성노동 증대는 노동력 배치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었는데, 북한 당국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부문의 우위에 있는 중공업에 남성노동력을 우선 배치하고, 하위에 있는 농업과 경공업 및 지방공업에 여성을 배치하였다. 즉 산업부문의 위계와 성별분업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 정책은 노동자 간 성별위계에 반영되어, 높은 비율의 생산활동에도 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 직장 내에서 낮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 김일성정권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요구한 섹슈얼리티가 ‘어머니 노동자성’이다. 공장과 직장에서도 가정과 동일한 돌봄의 도덕과 알뜰한 심성을 발휘하라는 헌신성 독려이다. 이에 비해 남성노동자들에게는 계획달성과 당정책 관철을 위한 불면 불휴의 투철함 및 전투성과 인내심 등이 독려되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여성의 가사·양육·생활관리 노동이 온존한데다, 1960년대부터 가정혁명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혼여성들은 생활경제 책임자, 혁명하는 남편보조, 혁명의 후비대 및 체제수호의 전사 양성, 사회주의 생활양식 구현 주체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혁명과 권위의 상징이었으나, 가정의 혁명화를 위한 독특한 역할이 강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부부간 위계는 兩性자녀 간 위계와 가사노동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더욱이 수령제와 세습체제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절대권력을 중심으로 전(全)사회를 위계적으로 구성한 북한체제의 가부장성은 전체 주민에 대한 권력의 위계성을 극도로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지배성과 주민의 복종의무는 양성 간 性別위계를 더욱 구조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권력은 생산현장과 가정에서 성역할을 위계적으로 구조화했다. 이러한 성역할의 위계구조화는 전통적인 양성 불평등성과 연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선군정치 이전 북한권력이 여성에게 요구한 성적 정체성은 보은과 섬김, 헌신, 근면·알뜰이라는 여성 도덕률에 집중되었다. 이 특성들은 선군시대 10



년을 경과하며 2006년 현재까지 북한여성에게 강제되고 있는 중요한 여성성이다. 한편 경제난과 선군시대 前시대와 달리 핵심적으로 강조된 여성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급과 자원부족 상황에서 일차적 자원분배를 군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선군시대, 국가의 국민부양 의무를 여성에게 전가시키면서 강화된 여성성이다. 둘째, 이악함이다. 주민생존을 국가권력과 남성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체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 및 실리에 민감함과 경쟁적인 市場性을 체화한 ‘생존 전쟁의 전사’로 나아가며 강화된 여성성이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